

나무심기 좋은날 언제? ... 식목일 논란

70년간 식목일 기온 3.2도 상승...식재 후 고사 가능성

산림과학원 "6.5도 적합...광주 2월24일이 최적"

"4월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죽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높아지면서 해마다 '식목일 시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에서 나무 심기에 가장 좋은 날은 4월5일 식목일이 아닌 2월24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목일이 처음 제정된 1940년대보다 최근 평균 기온이 크게 오르고, 일조 시간이 늘었기 때문이다. 31일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가 발표한 '식목일 기온 변화'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최근 10년(2006~2015년) 기온을 분석한 결과 나무심기에 가장 알맞은 평균기

온(6.5도)을 보인 시기는 2월24일째로, 식목일보다 40여일이나 빨랐다. 광주지역의 평년(1981~2010년)기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월12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뭇잎이 나는 시기와 땅속 온도를 분석해 일 평균기온이 6.5도일 때 나무를 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광주를 비롯해 서울, 대구, 부산, 제주, 강릉 등 6개 도시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는 제주가 2월1일(최근 10년)과 2월12일(평년)로 조사돼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2월1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무 심기 행사를 하기도 했다. 1946년 제정된 식목일의 평균기온은 70년 동안 크게 올랐다. 광주의 식목일 평균기온은 1940년대 8.5도였지만 1960년대 9.5도, 1980년대 10.7도, 2010년대에는 11.1도를 기록했다. 최근 10년 평균기온은 11.7도로 1940년대보다 3.2도나 높아졌다. 평균최저기온도 1940년대 3.3도에서 최근 10년 6.2도로 2.9도 올랐고, 일조시간도 6.9시간에서 8시간으로 1.1시간 늘어났다. 반면 최근 10년 강수량은 0.6mm로 1940년대(4.4mm)보다 3.8mm 줄어 들었다. 식목일 시기 논란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4월에는 이미 나무의 잎이 나오기 때문에 자칫 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실제 나무는 잎 또는 눈이 떠면서 뿌리가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 뿌리를 건드리면 생육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과거 정부 차원에서 식목일 변경이 추진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식목일 변경이 추진돼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국무회의에 상정됐지만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났다. 식목일의 상징성을 유지하되 지자체별로 기온변화를 고려해 나무 심기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지자체별로 나무 심기에 시기에 상관없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9년 식수절을 4월6일에서 3월2일로 변경했다. /김경민기자 kjk@kwangju.co.kr



봄처럼 진달래밭 오셨네 지난 31일 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호남대학교 교정에서 여대생들이 연분홍 진달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만개한 봄꽃... 열린 캠퍼스

전남대 이번주 주차료 무료·동강대 축구장 개방 조선대 시민체력증정 서비스·광주과기원 문화행사

활동하기 좋은 시기, 대학이 지역민들에 대한 맞춤형 스킨십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캠퍼스에 만개한 봄꽃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발빠르게 주차 요금을 무료화 하는가 하면, 답장을 허물고 잔디 축구장을 개방하며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뒷밭을 분양하면서

작물 재배법을 알려주고 시민들 체력·건강까지 관리해준다. 전남대 캠퍼스는 도심 속 봄꽃 나들이 명소다. 벚나무와 홍매화, 목련, 개나리 등 봄꽃 2만3000여 그루로 눈이 부실 정도다. 벚꽃 개화 시기가 이번 주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남대는 2~3일 주차 요금을 무료화해 캠퍼스를 개방

키로 했다. 누구나 찾아와 팬지, 튜립, 수선화와 철쭉 등 '봄의 향기'를 만끽하라는 취지다. 전남대는 뒷밭도 지역민들에게 무료로 분양했다. 광주 캠퍼스 농업실습교육원 실습장 내 4620㎡ 규모와 나주농장(6600㎡)을 시민들에게 분양한 뒤 농기구, 퇴비도 제공하고 교수와 강사들이 작물별 재배법도 알려준다. 동강대는 벽돌식 담장을 허물어 고 최근 단장한 인조잔디 축구장(5050㎡) 규모 운동장을 주말과 휴일 주민들에게 개방

로 했다. 기존 외부에서 학교 내부를 볼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도록 한 폐쇄형 돌담을 제거하고 개방성을 높여 시민들과 거리를 좁히기 위한 것이라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조선대는 체육관 내 '시민체력증진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시민들의 체력 측정 및 맞춤형 운동 처방을 내리고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광주과기원 기술원은 지난 24일 '너비별' 태권도 퍼포먼스와 무용과 국악이 어우러진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마련하는 등 매년 4차례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9, 해질 18:54, 달돋이 01:39, 달질 12:15

꽃구경 가세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9/23	보성	맑음	6/21
목포	맑음	7/18	순천	맑음	10/22
여수	맑음	11/18	영광	맑음	5/22
나주	맑음	6/24	진도	맑음	7/18
완도	맑음	9/20	전주	맑음	6/24
구례	맑음	7/23	군산	맑음	6/21
강진	맑음	7/21	남원	맑음	4/24
해남	맑음	6/22	홍산도	맑음	6/13
장성	맑음	6/23			

비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남부	북서~북	남서~서	북서~북	남서~서
안바다	안바다	0.5	0.5	0.5	0.5
남해	안바다(동)	0.5~1.0	0.5~1.0	0.5	0.5
서부	안바다(서)	1.0~2.0	1.0~1.5	1.0~1.5	1.0~1.5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자외선 높음
- 피부질환 보통

주간 날씨

2(토)	3(일)	4(월)	5(화)	6(수)	7(목)	8(금)
☀	☁	☀	☀	☀	☀	☀
10/24	12/16	9/17	8/18	8/19	10/19	8/21

성매매에 더 보수적인 전라도

리얼미터 특별법 존폐 설문...유지 의견 45% 전국 최고

광주와 전남·북지역만 유일하게 성매매특별법 '유지'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538명을 대상으로 성매매특별법 존폐에 대해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4.2%포인트)한 결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43.2%)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37.4%)을 오차범위(±4.2%포인트) 내인 5.8%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폐지 찬성 비율이 4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충청·세종(45.4%), 대구·경북(45.0%) 순으로 폐지 찬성 비율이 높았다. 반면 광주와 전남·북에서는 폐지 34.6%·유지 45.0%로 '유지' 의견이 우세했

다. 부산·경남·울산(폐지 39.6%, 유지 39.6%)에서는 두 의견이 동률로 나타나 매우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의 폐지 찬성 의견이 59.4%로 여성(37.4%)보다 크게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와 40대에서 폐지 의견이 각각 53.0%, 47.7%로 다수를 차지했다. 60세 이상과 50대·30대에서는 폐지와 유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섰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7.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0.4%로 나타나 폐지 의견이 우세했다. 중도층에서는 폐지 44.9%·유지 39.2%, 보수층에서는 폐지 39.3%·유지 40.4%로 나타났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무등산에서 쭉 캐면 안돼요"

야생식물 채취 5월까지 단속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공원 내 야생식물 채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집중 단속 행위는 공원에서의 쭉, 고

사리, 냉이 등 봄나물을 비롯한 야생식물 무단 채취행위, 썩길 출입행위로 단속은 5월 말까지 지속된다. 위반 행위 적발시 야생식물 채취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썩길 출입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형호기자 khh@

이동식 한옥 사랑채

사랑채, 힐링하우스, 한옥펜션, 이동식주택, 도시옥상 휴식공간이나 민박, 농가주택, 찜질방, 이동식 화장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

전통한옥을 집묵한 원목위주의 친환경 자재와 철구조로 이루어진 내진설계 내화판넬을 이용한 우수한 단열효과 및 화재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식 시스템한옥

단열걱정 NO! 소음걱정 NO! 화재걱정 NO!

내부 한옥문 특히 단열창 서까래 및 부연 화장실

기본옵션 | 화장실, 싱크대, 신발장, 바닥난방

www.뒤틀마루.com 이동식 한옥 전문기업

조승학우정 061-461-1800 H. 010-3631-0372

새 주인을 찾습니다

아름다운 펜션 30년 영업중

- 70~80년된 벚꽃, 소나무, 백일홍,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 잡종지 15,688㎡ (4746평) 전 1,985㎡ (600평) 총 5,346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20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IC 15분/문평I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금액 24억 현지 답사 후 조정

H. 010-3119-6952